

Virginia Chapter 소식 2022 년 12 월 6 일 송년 모임

12 월 6 일 정오 버지니아의 센터빌에 있는 강촌 연회장에서 3 년만에 모임을 가졌다.

동창 22 명, 사모님 15 분, 재미김 동창회 사무장 포함 총 38 명이 모였다.

힘든 코로나를 이기고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용계의 지난 학술대회 참여 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다. 사회는 주광국 Website 위원회장이 맡았고 조병선(71) 테너의 리드로 서울대학교 교가 합창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그동안 작고하신 임종식, 고재경, 김윤태, 조창남, 박용분 김용덕선배님 부인에 대한 묵음을 드리고 진행되었다.

동창회와 모교의 인사이동 실황과 차기 38 회 미주학술대회가 LA, California 에서 열리는 소식을 전했고 많은 참가자가 있기를 권했다. 근래에 여러가지 이유에서 버지니아로 오는 동창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기쁜소식, 또 동창회 사무실이 뉴욕에서 버지니아로 이동하게된 기쁜 사실을 Jamie Kim 사무장이 직접 설명했다. 따라서 의아하게 생각하던 시계탑에 나온 동창회비를 납부하는 Haymarket PO Box 가 맞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식과 중국요리를 겸하여 준비한 전식과 식사를 나누면서 각 동문마다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지난 긴 시간동안 있었던 자기소개를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설명했다.

58 년 졸업 이종국(58)님과 김부근(58)님이 최 연장자였고 유영준(74) 님이 최 연소자였는데 많은 더 젊은 동문들은 이번 모임이 주중의 낮 시간이라 환자를 진료하느라고 참석을 못했다. 특히 남명호, 신원석, 장세권동문들이 그 예가 된다.

오랫만에 만난 탓인지 모두들 진지하게 연회장이 떠나갈 듯이 말렸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또한 후식 후, 사진 촬영을 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사진촬영을 극구 사양을 해서 동창분들만 기념촬영을 했다. 이 모임을 위하여 서울 모교 동창회에서 비싼 송료로 보내온 2023 년 달력을 나누어 받고 이제부터는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고 서로의 건강을 당부하고 헤어졌다. 다음 모임에서는 서울모교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새 주소록이 도착되는 대로 배부될 예정이다.

참석한 동문들; 이종국(59), 김부근(58), 나길진(59), 한달수(59), 김용덕(59), 진창건(61), 서휴열(61), 김진수(66), 유달(67), 방정화(67), 신용계(68), 주광국(68), 김주평(68), 김희주(68), 김진홍(68), 김철(68), 서윤석(68), 김병오(69), 박동수(71), 조병선(71), 김풍영(72), 유영준(74)이며 그 부인들과 Jamie Kim 사무장.

